

‘2017 강진 방문의 해’ 민간추진위 출범

민관화합·협력·성공 다짐 “군민이 앞장서야 할 때”

강진군이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이끌고 나갈 ‘민관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5만 강진군민을 대표하는 민관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협력과 성공을 다짐했다. 민관 추진위원회는 기획홍보, 기반조성, 프로그램운영, 민관협력, 소득경영의 총 5개 분과 83명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 및 체계적인 준비와 주요 정책 심의·의결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강진 군민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내년 강진의 방문의 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출범식 식전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한 오감통음악인연합회 최현석 회장은 “음악인의 놀이터이자 음악창작소인 강진오감통, 신선한 수산물물을 공급하는 마량농도수산시장, 최근 선보인 강진만 생태공원 등에 전국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강진 방문의 해와 맞물려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강진원 강진군수와 마삼섭 민간추진위원회위원장 등 ‘2017 강진 방문의 해 민간추진위원회’들이 지난 22일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협력과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문막대 강진군지부장은 “이번 강진 방문의 해 민간추진위 출범 및 군민발대식을 계기로 이제는 관보다 민이 더 앞장서야 한다”면서 “군민이 방문의 해 행사의 손발이 돼 열심히 고객을 맞이하고 움직여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열매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

해 “다가오는 불황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만 없고 이를 반드시 타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 아래 강진군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편 중 하나가 내년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마삼섭 민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내년 손님맞이를 위해 전남도공무원교육원 이전과 남도음식문화관잔치 유치를 성공시킨 강진군민의 힘을 모아 강진브랜

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는 강진청자와 영광시인, 다산 유적 등 기존 자원에 최근 4년 동안 새롭게 발굴한 문화관광 자원,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감성과 넉넉한 인심까지 모든 강점 자원을 모아 관광객을 유지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산지가격으로 김장을”

전북도청 광장서

25~26일 직거래 장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배가량 오르자 전북도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25~26일 도청 광장에서 배추, 무, 소금, 젓갈, 양념 채소,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와 가공식품을 포함해 200여 개 품목을 산지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장터에서는 김장배추 1만4000포기를 산지가격인 2200원 안팎에 판매한다. 1인당 15포기(5방)까지 살 수 있으며, 5방을 사면 배추(1방)와 생강(1.5kg)을 덤으로 준다. 특히 최근 가격이 폭락한 생강, 소금, 찹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우정 고창군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충력’

국회 방문 현안사업 지원 요청

박우정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원회를 방문해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등 정부 사업으로 반영된 75개 사업 669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26회 이상 방문하며 고창군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끝에 75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 군수는 특히 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국도 23호선 등 6개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국회상임위단계에서 포함돼 예결위에 요구되도록 하는 폭집도 발휘했다.

박 군수는 이번 방문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고창 출신 정운천 의원 등을 만나 국회 상임위단계에서 반영된 국도 23호선(부안군 ~ 흥덕면) 확·포장 사업비 20억원(총 사업비 1497억), 칠암전지방화전정비사업 5억원(총사업비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난 2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국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156억), 한빛원전민간환경기능강화감시사업 등 신규사업의 반영을 요청했으며, 2억원이 반영된 국도 22호선(아산 삼인리 ~ 심원면 공산리)사업비를 50억원(총사업비 472억원)으로 증액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국도 23호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정운천 의원은 고창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군수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심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면서 “특히 국회과정에서 목표한 현안 사업들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책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배우자”

전국 각지서 벤치마킹 나서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 선진 견학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타 자치단체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평균 1개월에 2~3차례 센터를 찾고 있다.

지난 7일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주민 30여 명이 우수사례를 배우고자 도시재생사업지를 견학했다.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 때 행정과 주민이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는 테마거리 조성, 예술거리 꾸미기, 건축물 리모델링, 조형물 설치,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진행한다. 주민들은 시민문화체험공간 조성, 협동조합 설립,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진행하면서 행정 예산은 지원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시와 주민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 공동화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고 필요하면 행정과 협력한다”면서 “다른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이 이번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공무원노조연맹, 고창 ‘원광 참살이’ 찾아 사랑나눔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진)이 고창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연맹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10여명은 지난 23일 고창군 고수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원광 참살이’를 찾아 어르신들과 정을 나눴다. <사진>

전북연맹은 도민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릴레이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광 참살이’ 방문은 임실, 익산, 완

주에 이어 네 번째로 이날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담소 등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김용진 위원장은 “전북연맹은 9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결성됐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 이전, 새만금 삼정투자악수 이행 등 전북 발전과 함께 하는 사업에도 적극 대응”면서 “앞으로 도 도민과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전봉준 제자 회고록 ‘석남역사’ 동학혁명재단에 기탁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제자가 쓴 회고록 ‘석남역사’(石南廳事)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인 동학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박문규(朴文圭 1879~1954)의 회고록 ‘석남역사’를 유족들이 최근 재단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석남역사’는 저자인 박문규가 72세가 되던 1951년에 국한문혼용체로 쓴 회고록이다. ‘석남’은 박문규의 호다.

이 회고록에는 저자가 15세가 되던 해

(1894년)에 발발한 고부 봉기와 황도원 전투 등 직접 보고 체험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저자는 7세 때부터 전봉준이 문을 연 서당에 다닌 그의 제자다.

동학농민혁명재단 관계자는 “석남역사가 관공이나 유림이 아닌 농촌 지식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재단은 ‘석남역사’를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고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술조사와 연구·전시·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아트 현대아파트매 매 22억

농지 / 투자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연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 화순군 도곡면 드림강변 3694㎡ 전원주택 개발적합 5억1천5백
- 담양군 대덕면 입석리 993㎡, 599㎡, 665㎡ 평당 5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을 교환가능 5억
- 광산군 송정동 주거지 611㎡ 투자에 적합 2억원
- 동구 대인동 도로점 중심상업지 580㎡(175평) 12억2천
- 광산군 동산동 그린벨트 담 2638㎡(798평) 은행 8천 매도 1억2천
- 정읍시 시가지 2층 주거지 428㎡ 원룸, 다세대 적합 1억6천
- 나주시 산포면 9053평 공동개발·교환 가능 은행 8억 매도 28억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3억6500
- 담양군 무정면 매립된 땅 3031㎡ 주택 등 적합 2억4천
- 무안군 청계면 4513㎡ 농장·전원생활·농산물시설 적합 7천만원
- 담양읍 테마널부근 담 4501㎡ 투자에 좋음 9억6천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430㎡ 차량통행 1억3천
- 제주시 강정해군기지부근 3891㎡ 경관최고 건물과 교환 26억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운전면허시험장 요양시설 등 적합 8억

상가건물

- 화정동 대로면 대지 235㎡ 건물 293㎡ 상가신축용 7억원
- 나주시 이창동 원룸건물 대지 337㎡ 땅 16개 월 4000이상 수입 6억
- 도널 중흥동 대지 184㎡ 건물 652㎡ 은행 3억9천 교환가능 4억2천
- 월산동 4층 상가건물 대지 160㎡ 건물 418㎡ 5억
- 동구 대의동 대로점 대지 487㎡ 건물 1948㎡ 19억8천
- 내방동 원룸 대지 144㎡ 건물 370㎡ 전세 6천에 270 매도 4억
- 백운로터리 부근 3층 상가주택 대지 126㎡ 건물 199㎡ 3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물 152평 원룸5, 투룸7 인집 매도 6억7700
- 월산 파출소 서 충정로 방향 80m 2층 건물 땅 132㎡ 건물 147㎡ 1억8천

주택

- 리모델링할 주택 월산동 대지 145㎡ 주택 91㎡ 6900만원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09㎡ 주택 60㎡ 급매 8200만원
- 합평군 해보면 문정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